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0 - 16 (1호)
안건유형	심의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 · 훈련 혁신방안(안)

2020. 9. 2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추진방향	2
III. 추진 체계도	5
IV. 구체적 추진 과제(안)	6
1.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	
① 평생교육·훈련 통합 서비스를 위한 [가칭평생배움터] 구축	6
② 비대면 평생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	10
2. 보편적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③ 다양한 평생교육·훈련 공급 여건 마련	13
④ 평생교육·훈련 학습자 지원 확대	15
⑤ 다양한 활동을 학습으로 인정	18
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	
⑥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훈련 추진체계 구축	20
V. 향후 추진 계획	21

I.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로 평생교육·훈련의 중요성 증대

- A·I 등 신기술 발전, 디지털화는 지식·정보 유통기한의 단축, 근로 형태 다양화·유동화 등 산업구조·노동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
- 개인이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평생교육·훈련을 통한 인생 2·3모작 준비가 중요
 - ※ 실질은퇴연령(OECD, '15) : 남성 72세, 여성 71.7세
- 실제 평생교육·훈련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고등교육 수준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 평생학습 참여율 : ('16) 35.7% → ('17) 35.8% → ('18) 42.8% → ('19) 43.4%
 - ※ 25세 이상 성인의 경우 76.1%가 대학평생교육 참여 의사 (KEDI, '18)

□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평생교육·훈련의 체계전환 필요

- 코로나19는 디지털화와 비대면 생활양식의 급격한 확산과 같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충격을 야기
 - ※ 비대면 산업의 확대,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 재택근무의 확산 등
-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원격 방식이 대면 방식을 대체하면서, 원격학습·훈련의 활성화와 질 제고, 학습자 지원이 이슈로 부각
 - ※ 대학·전문대학 수업방식 : 원격수업 87.%, 과제물 대체, 집중이수, 보강 등 125% ('20.3월)
- 코로나19 이후 확대되는 사회경제적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평생교육·훈련의 중요성은 국가·개인 차원에서 더욱 증대 예상
 - 전통적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학습과 직업훈련, 직무경험을 거치면서 새로운 가치와 기술을 창출해 내는 창의적 인재가 절실
 - 누구나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는 보편적 평생교육 사회가 구현되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미래지향적 평생교육·훈련 체계로의 전환 필요

II. 현황 및 추진방향

□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체계 구축

- 다양한 기관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제공 중이나,
 - * K-MOOC, KOCW, 매치업, STAR-MOOC, STEP, 사이버대학 등
- 플랫폼 간 자료 및 학습이력이 체계적으로 공유·유통되지 않아 학습자의 학습정보 접근에 한계 및 학습이력의 체계적 관리 어려움
- 비대면 시대를 맞아 K-MOOC를 보다 혁신·고도화하여 한국의 비대면 교육을 선도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필요
- 원격교육·훈련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콘텐츠의 추가 확보가 필요
 - 다양하고 광범위한 콘텐츠의 분류와 탐색·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기준체계는 미비

- ⇒ 학습자 친화적인 평생교육·훈련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 K-MOOC를 고품격의 전문화된 글로벌 플랫폼으로 고도화
- ⇒ 다양한 교육·훈련 콘텐츠 확보, 분류·탐색 기준 마련

□ 평생교육훈련 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비대면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대표기관인 원격대학은 규제로 인해 보다 심도있는 교육을 유연하게 제공하는 데에 한계
 - ※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불가, 전공심화과정 설치 불가, 시간제등록제 운영 방식 제한 등
- 성인학습자가 역량제고를 위해 고등교육 참여를 원하더라도, 일·학습을 병행하는 생애주기적 특성상 장기간(2~4년) 지속적인 교육 참여가 곤란

- 사내대학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이 다양한 평생교육·훈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나 각종 규제 등으로 정체된 상황
 - ※ 특히 소기업은 수준 높은 재직자 직무역량제고 교육·훈련의 필요가 큼에도 사내대학 설치·운영 요건 부족

- ⇒ 원격대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추진
- ⇒ 원하는 시기에 단기간에 걸쳐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모듈화를 통한 '역량 이수제' 도입
- ⇒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교육훈련기관이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평생교육 · 훈련 참여를 위한 지원체계 내실화 필요

- 소득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변화 대응역량 제고가 필요함에도 평생교육 참여율 저조
 - ※ 월 가구소득별 평생학습 참여율('19) : 500만원 이상 (46.6%) > 300~500만원 미만 (40.0%) > 150~300만원 미만 (35.1%) > 150만원 미만 (30.5%)
 - 실업자도 평생학습 불참의 주요 요인으로 학습비 부담(27.3%)을 지적
 -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의사는 있으나 일·학습 병행이 어려운 여건이 학습·훈련 불참·중도포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19 한국성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이 평생학습 불참 요인 1위(56.8%). 중도포기 요인 1위(32.2%)
- 원격평생교육에 대한 낮은 접근성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심화시키면서 학습·발전의 기회를 박탈하는 악순환의 가속화 우려
 - ※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기기 활용 등)은 60.2%, 디지털정보화 활용수준(활용 서비스 다양성 등)은 68.8%
- 성인학습자는 취업, 이직, 진로변경 등을 원하나 다양한 분야의 이론·실무를 넘나드는 학습·훈련 로드맵은 부재

- 학습-훈련-자격-직무경험 간 상호 연계를 위한 국가역량체계(KQF)의 틀은 제시('19)되었으나, 현장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부족

- ⇒ 학습비·학습시간 확보 등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전 국민의 평생교육·훈련 제공 기회 보장
- ⇒ 학습자의 학습·훈련 경로 지원을 위한 이수체계도 구축
- ⇒ 학습-훈련-자격 등 상호 연계 가능한 KQF 기반 산업계 적용 기준 마련

□ 국가차원의 평생교육·훈련 연계를 위한 협업 및 지원체계 구축

- 지역 여건과 관심에 따라 지역간 평생교육 격차*가 나타나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과 지자체간 연계·협력관계 구축 미흡
 -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시도에 따라 별도원(院)에서 타 기관 부속 센터 수준까지 다양
-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미흡
 - ※ 부처간 협업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
- 국가평생교육진흥원('08~)은 사업의 집행에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국가 평생교육의 아젠다 발굴·제시 및 정책 추진 기능은 취약

- ⇒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평생교육을 이끌어 나갈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인력보완 등 역량 강화

Ⅲ. 추진 체계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고 학습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평생교육 사회 구현



1.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	① 평생교육포털 평생배움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훈련 종합플랫폼 '평생배움터' 구축 타 플랫폼과 상호 연계 추진
	②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비대면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K-MOOC 2.0 추진 평생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확보 및 메타데이터 기준 마련 ※ 직업훈련과정, 디지털집현전 등
2. 보편적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③ 다양한 평생교육·훈련 공급 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원격대학 규제 완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경로 발굴 ※ 역량이수제 도입, 소규모 사내대학 도입, 평생직업교육학원 활성화 등
	④ 평생교육·훈련 학습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평생교육·훈련 참여시간 확보를 위한 학습휴가 활성화 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진단 및 콘텐츠 개발·제공 교육·훈련 경로맞춤형 설계 위한 이수체계도 구축
	⑤ 다양한 활동을 학습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훈련, 직무경험을 학습으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구체화
3. 거버넌스 정비	⑥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개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역할 재정립



지속적인 학습·훈련을 통한 적응·대응역량 제고 필요



포스트 코로나19는 '비대면'이 새로운 기준

디지털화로 산업노동구조 유동성 상승

기대수명 증가로 인생 23모작 준비 요구

IV. 구체적 추진 과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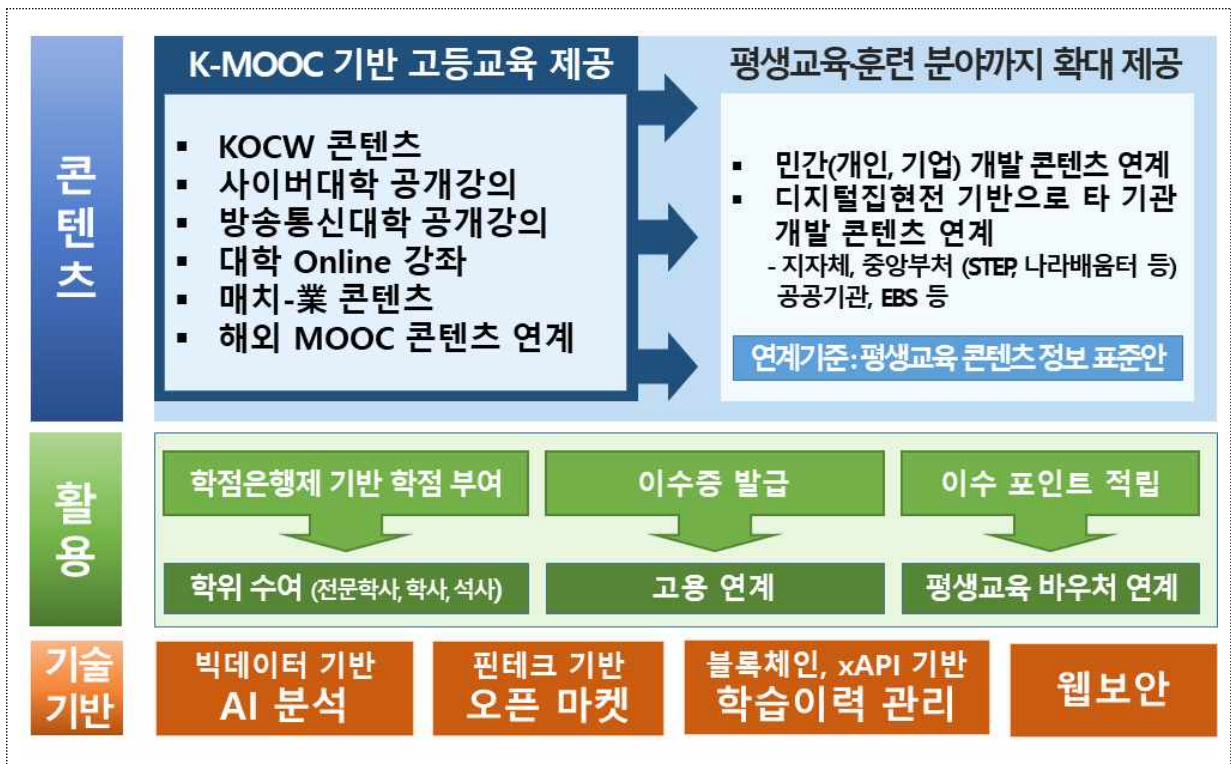
1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

① 평생교육·훈련 통합 서비스를 위한 ‘(가칭)평생배움터’ 구축

- 학습자가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학습·훈련 이력을 One-stop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칭)평생배움터’ 구축

※ ‘(가칭)평생배움터’ 구축을 위한 관련 ISP 예산 확보(정부안, 2억, ‘21년)

《 (가칭)평생배움터 개념도 》



- (콘텐츠 제공) 대학 강좌부터 다양한 평생교육·훈련을 망라하는 양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평생배움터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

- 디지털집현전과 연계하여 배움터에서 각 플랫폼에 산재된 평생 학습 콘텐츠 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분류·탐색·활용의 기준으로서 ‘평생교육 콘텐츠 정보 표준안’ 개발 추진

- 학습자가 평생배움터를 통해 민간 개발 콘텐츠도 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기반의 개방형 체계로 운영
- 학습자가 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 관리 방법 도입

평생배움터 콘텐츠 질 관리 방안(안)

- ▶ 평생배움터를 통해 직접 제공하는 콘텐츠는 일정한 인증 절차* 실시
 - *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NCS 학습모듈 등 정부 제시 기준과 불일치하더라도 현장직무 적합성이 높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인증 가능하도록 설계
- ▶ 학습자가 이수 후 만족도 등을 고려해 점수를 부여하는 학습자 평점 체계 구축
- ▶ 학습자와 선호도와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는 별도 심사를 거쳐 국가 공인 우수콘텐츠로 지정 (필요시 저작권을 구입하여 무료 공개 하는 방안 검토)

- 체계화된 콘텐츠 통합·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타 플랫폼 연계·지원
 - ※ 선호도가 높은 우수 콘텐츠는 타 플랫폼(예시 : ‘청년 Dream 국군 드림 모바일 웹’ 등)과 연계하고 학점 취득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추진
- (학습이력 관리) 학습자가 자신의 모든 학습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플랫폼에 산재되어 축적된 개인의 학습 결과를 평생배움터를 통해 연계·공유 (학습자 개인의 동의를 전제)
- 정규과정 이수 외에도 독서, 마이크로 러닝, 학습 동아리,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xAPI 방식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축적

xAPI (Experience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란?

- 학습자의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학습경험을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이 쉽도록 간단한 어휘(명사, 개체, 동사)로 전환하여 축적
- 결과를 학습기록저장소(LRS: Learning Record Stores)에 축적·분석하여 제시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콘텐츠 추천 등에 활용

- 학습이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의 수요에 적합한 최적의 학습 경로 설계·제공 지원
- 축적된 학습이력을 유통하는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무결성을 제고하고 이력의 사실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학습결과의 활용) 콘텐츠 이수 결과를 학점·학위 취득에 활용하거나 취업·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정보 관리·제공 지원

운영 예시

- ▶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한 A씨**, 평생배움터를 통해 고등교육 수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수 → 이수 결과를 조합한 결과 적정 요건에 해당되어 학사학위 취득

- 아울러, 콘텐츠 이수로 얻은 포인트(예 : 1시간 이수 → 1포인트)를 적립한 결과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보상하여 학습 몰입 유도

※ 예시) 포인트 누적에 따라 고급 콘텐츠 단계적 무료 개방, 평생교육 이용권 추가 지급 등

운영 예시

- ▶ **저소득층 B씨**, 평생배움터에 개설된 개인 가상 계좌를 통해 평생교육 바우처를 수령하여 온라인으로 콘텐츠 구매 → 유무료 콘텐츠를 이수한 결과 충분히 축적된 포인트를 평생교육 바우처로 추가 교환 → 보다 심도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 제고

- 무수한 콘텐츠 활용을 통해 축적된 콘텐츠 이용 정보와 학습 정보는 개인정보 삭제 후 공공데이터로서 공급하여 평생교육 정책 수립 등에 활용

운영 예시

- ▶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C씨**, 평생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활용 정보를 분석하여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 ▶ **평생교육 정책을 기획하는 지자체 공무원 D씨**, 평생배움터를 통해 수합한 지역 소재 학습자의 검색·학습이력 통계, 콘텐츠 활용 통계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 다양한 공공기관 플랫폼간의 연계·활용

- 교육부 소관 평생학습 플랫폼 간 통합, 교육부-지자체 평생학습 플랫폼 간 연계를 순차적으로 추진 ('20~)

① 차세대 K-MOOC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AI 기반 맞춤형의 온라인 학습콘텐츠
 ↓ 제공 기반 마련('20~) * '20년 추경 예산확보 (29.3억)
 ↓
 ② 기능별로 분리되어 효과성이 낮은 교육부 소관 평생학습 시스템을
 ↓ '평생역량개발 원-아이디(ONE-ID) 시스템'으로 통합·연계*(~'22)
 ↓ * 연계 대상 : K-MOOC 플랫폼, 평생학습계좌제(학습이력), 늘배움(콘텐츠), 평생교육바우처 등
 ↓
 ③ 디지털집현전 시스템, 지자체별로 既구축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등과
 상호 연계를 통해 콘텐츠 및 정보 공유, 학습이력 통합관리 등 추진('22~)

- 각 부처 소관 플랫폼이 보유한 평생학습 콘텐츠 정보(메타데이터 등)와 개인별 학습이력 정보 상호 공유·연계* ('22~)

* 학습이력 공유는 학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정

《 타부처 소관 플랫폼 사례 》

소관부처	플랫폼명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HRD-NET	▲ 직업훈련 교육과정 정보 제공 ▲ 정부지원 사업 업무처리 지원 ▲ 내일배움카드 발급 ▲ 훈련이력 관리
	STEP	▲ 온라인 기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 학습경로 상담지원 ▲ 온라인 직훈콘텐츠 유통체계 구축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 플랫폼	▲ 민간 개방형 콘텐츠 유통시스템 ▲ 직무중심 지능형 학습시스템 ▲ 실시간 화상 교육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클럽	▲ 과학기술인 대상 경력개발 지원 ▲ 역량진단시스템 ▲ 멘토링 및 자가설계 교육 ▲ 경력개발사례 콘텐츠

※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고용 관련 누리집을 하나의 ID(One-ID)로 이용 가능(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민원마당, 월드잡+, STEP 등)하도록 개선 완료

② 비대면 평생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 미래 비대면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K-MOOC 2.0 추진

- ① 코로나 장기화로 다양해지는 온라인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
- ② 지식전달 이외 온·오프라인 소통·공유 기능 구축
- ③ 학습자 및 참여기관(교수)의 지속 참여 유인 시스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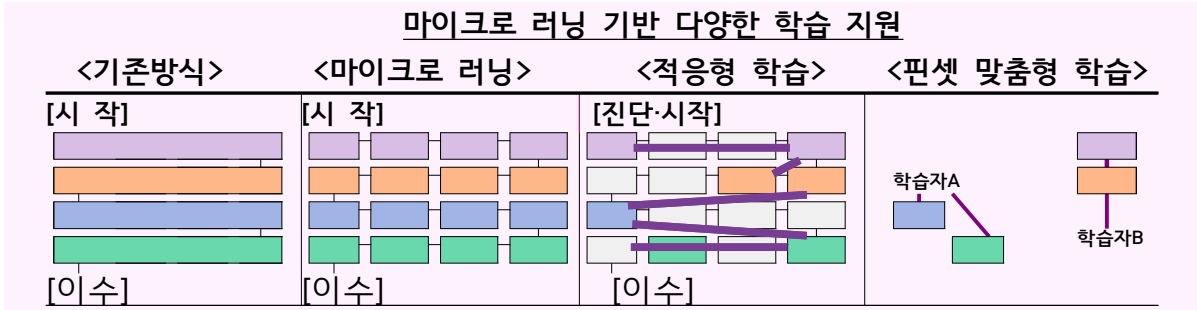
①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콘텐츠 공유

- (한국형 마스터클래스* 강좌) 국내·외 석학 등 유명인사를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주제별 강좌 개발·제공
 - ※ 마스터클래스(美 '15년~) : 최고 수준의 기획력과 각 분야 전문가(유명작가, 협상전문가, 경제학자)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수(85개)의 강좌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기관
- (글로벌 우수콘텐츠 제공) 해외 우수대학·MOOC 플랫폼(Coursera, edX 등)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 제공(매년 50개)
 - ※ 저소득층 학생은 별도로 일부 선정하여 코세라, 유다시티 과정 수강료 지원
- (K-MOOC 글로벌화) K-MOOC 중 해외학습자 수요가 높은 분야에 자막 제공, 해외 학습자 접근성 제고 및 한류 확산 지원
 - ※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 및 미국 등 해외교육원의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경제 등 교육콘텐츠 요구 증가
 - 중장기적으로 AI자동 자막 생성·번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콘텐츠 간 공유 확대 및 자막제작 등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② 보다 맞춤형, 보다 다양한 온라인 학습 제공

- (다양한 강좌 제공)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매치업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강좌 연계, **석사과정** 대학의 온라인 석사과정 지원(플랫폼 지원) **자격·외국어** 취업준생 등의 학습수요가 높은 자격·외국어과정 확충
 - ※ K-MOOC 플랫폼 검색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 우선 노출 및 신속한 강좌 개발 또는 연계 지원

- (마이크로 러닝) 단계별 학습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 핀셋 맞춤형 학습 등 학습 효율화를 위한 마이크로 러닝 도입
 - ※ (기존) 1차시 50분 영상 → (마이크로 러닝) 5~15분 주제(또는 역량)별 영상 만들기



③ 학습 지속성을 위한 기능 확충

- (마일리지 도입) 학습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도서구입·기부 등 활용, 강좌 제공기관도 강의만족도 등에 따라 적립·인센티브 지급
 - ※ 마일리지 운영방안 연구('20.하) → 사전준비(사용처 등, '21.상) → 운영('21.9월~)

< 마일리지 적립(안) >

학습자	강좌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 이수완료 : 100점 · 만족도 표시 : 강좌당 1점(매월 한도 20점) · 댓글 작성 : 댓글 당 10점 · 베스트 후기 :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4점 이상 강좌 : 100점 ※ 단, 만족도 조사 참여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반영 · 강좌 이수완료자 : 1명당 10점 · 수강신청건수 : 1명당 0.5점

* 現 우수 강좌 지원사항: 블루리본 표창, 강좌 운영비 지원

- (상호학습 강좌 도입) 온라인 토론·동료 평가, 코딩실습, 오프라인 세미나 등 상호학습이 가능한 강좌 시범 도입('21)
- (동기부여 기능 보완) 우수학습자 대상 배지 제도 운영 및 학습목표 달성제 (일정대로 이수완료시 추가 마일리지) 및 맞춤형 추천강좌, 인기강좌 등 푸쉬 기능

④ K-MOOC 활용성 제고

- (대학·기업 연계) 대학·공공기관·기업 등 기관 활용 확대를 위한 기관별 맞춤형 홈페이지 지원(K-MOOC for Campus(Business)) 및 유료화 모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평생교육법 시행령, '20.하~)
 - ※ 現 나라배움터, 선거연수원, SK C&C 등 15개 기관 K-MOOC 시스템 연동·활용 중

- (블랙리본 과정 신설) 고난이도·엄격한 질 관리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K-MOOC 대표 과정 신설 및 취·창업시 활용 가능한 별도의 역량인증* 서비스 제공
 - * 영국 Futurelearn은 무료 MOOC 교육과 별개로 역량 및 수료증에 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별도의 오프라인 시험(응시료 15만원) 제도를 운영
 - * 미국대학은 온라인과정 이수시 엄격한 평가를 위해 proctor(시험감독관)를 사전에 지정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online proctored exam 실시로 시험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 구직 활동에 역량인증 결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취업사이트와 연계 추진

□ 다양한 평생교육·훈련 콘텐츠 개발·확보 및 메타데이터 기준 마련

- (직업훈련 과정) 비대면 직업훈련의 활성화 및 질 제고 차원에서 공공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고도화(AR·VR 접목 등) 및 개발 확대 추진 ('20~)
 - 민간 공급이 저조한 기술·공학 분야, 온라인 플랫폼(STEP) 기반 제공 ('20~)
 - 신기술 분야의 시의성 높은 직업훈련교육과정이 적극 개설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NCS 학습모듈*의 업데이트 추진 ('20~)
 - * 직업훈련교육과정의 기준이 되는 NCS 능력단위 별로 구성한 교수학습자료
- (디지털집현전 연계) 디지털집현전을 바탕으로 교육훈련기관(대학, 방송대 등)과 지자체, 공공기관, EBS 등이 보유한 콘텐츠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가칭)평생배움터'와 연계
- (메타데이터 기준) '평생배움터'에서 민·관의 평생교육·훈련 콘텐츠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류·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타데이터 기준 개발·제시 ('22~)
 - ※ 학습분야(세분류), 난이도 및 소요시간, 학습목표, 상세커리큘럼, 선수·후수 추천 등

국내 사례

- [교육용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 : '18, KERIS]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위해 초·중·고, 평생교육에 적용되는 메타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시 (콘텐츠 기본 정보, 콘텐츠 차시별 구체적 학습정보, 콘텐츠 활용 단말 등 환경 정보, 저작권 정보 등 제시)

- 개별 평생교육기관이 개발한 학습콘텐츠로부터 메타데이터를 보다 원활하게 추출·수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상 법적 근거 마련 ('22~)

3 다양한 평생교육·훈련 공급 여건 마련

□ 성인의 비대면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원격대학* 규제·완화

* 한국방송통신대학,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학(19개)

- (대학원·학위과정 확대) 사회 인력공급 부족 예상 또는 재직자 학습수요가 높은 일부 분야 대상 대학원·학위과정 다양화 추진 (‘20~)
 - 일반대 온라인 과정 확대로 일반대와 원격대간의 경계 감소 등 환경변화에 맞춰 원격대의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검토
 - ※ 의·치·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제외
 - ※ 현재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교육부 인가 사항)

국외 사례

- (미국·영국) 원격수업 여부에 따른 학위과정 설치 제한 없음
- (일본) ‘방송대학’에 박사과정을 두고 있고,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 기구’를 통해서도 석사 및 박사학위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

- (대학자율성 확대) 정원 범위내 시간제등록제 운영 방식 자율화 (‘21~)
 - ※ (현행) 시간제등록제는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내에서 통합반만 운영 가능 → (개선) 정원의 범위를 준수하되 운영방식은 대학 자율 설정
 - 2년제 사이버대학에 전문대학과 같이 전공심화과정 설치 허용
 - ※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87.9% 개설 필요 응답(19년, 한국원격대학협의회)
 - 대학 명칭에 ‘사이버’, ‘디지털’ 등 포함 여부 대학 자율 결정 (‘21~)
 -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교명을 자율화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11.5월)
- (글로벌화 촉진) 사이버대학의 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사이버대학을 통한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 증대 방안 마련
 - ※ 총 19개 사이버대학(고등교육법) 이 38개국, 73개 기관과 교류 협약 추진 중

□ 다양한 교육·훈련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경로 발굴

- (역량이수제 도입) 장기 교육과정(예: 4년 학사과정)을 단기(3~6개월)에 이수 가능한 콘텐츠군(群)으로 재구성한 모듈형 교육과정 도입
 - 성인학습자가 모듈형 과정 선택·이수시 관련 지식·기술·태도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총장명의로 역량 이수증(역량이수) 제공(21~)
 - ※ 복수의 역량이수증 조합 시 정식 학위 취득 가능
 - 시간제등록제 등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하여 성인학습자의 접근성 제고
 -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시범운영 및 지원 추진

- ◆ (개발 분야) 주로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하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해 유관 산업체와의 합동 직무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 등 적극적 협업 실시
- ◆ (법적 지위) 모듈화된 교육과정 이수 결과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및 이를 통한 장학금 지원 방안 등 검토

- (학점인정 소규모 사내대학 신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종업원 200인 이상 사업장) 기업만 학위취득이 가능한 사내대학 설치운영 가능
 - 재직자 교육수요가 높은 중소기업의 교육 편이성·적시성을 위해 이들 기업 내 학점인정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위탁포함) 허용 검토(22~)
 - * 대학, 타 사내대학, 타 사업체의 교육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 ※ 맥도날드 햄버거대학은 매장운영, 인사관리, 경영기술,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토론·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진행. 미국 1,600개 대학에서 학점 인정
- (평생직업교육학원 활성화) 성인대상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이 개인의 학습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 학원법상 지위를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20~)

- ※ (개정 사항(안)) ▲ 학원법 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분야 중 직업기술 분야를 분리하여 평생교육법으로 이관 ▲ 설립 방법, 교습비 관련 규제, 행정처분·벌칙 규정 완화 ▲ 평생교육법상 '직업교육목적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등

4 평생교육 · 훈련 학습자 지원 확대

□ 평생교육 · 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저소득층 성인학습자가 더 많은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바우처의 인당 지원액을 확대 ('21~)

※ (현재) 최대 35만원 → (개선) 기본 35만원, 최대 70만원* → 규모 지속 확장

* 평생교육 참여 이력에 비례하여 이용권 추가 지원

- 보다 많은 국민이 부담없이 학습·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취업준비생에게도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21~)

국외 사례

▶ 싱가포르 SFC(SkillsFuture Credit) : 25세 이상 국민 누구나, 500싱가포르 달러(44만원) 크레딧 부여, 해당 크레딧으로 정부 승인 학습과정 수강

▶ 프랑스 Personal Training Accounts : 개인 근로자에게 연간 500유로(66만원)씩 최대 5,000유로 지원, 인증/등록받은 교육과정 이수

※ 일정 교육수준(ICED 수준 3) 미만인 자는 800~8000EUR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를 비대면교육에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생배움터 내에 온라인 교육콘텐츠 간편 구매·결제 서비스 구축 ('24~)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 참여시 50만원(K-Digital credit) 추가 지원 ('21~)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제외)

▶ (지원 규모)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100% 지원

▶ (활용처)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

- (학자금 지원 확대) 학습자가 대학 본부 차원에서 비학위과정으로 운영한 모듈화 교육과정 이수 시,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24~)

※ 학자금 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 평생교육 · 훈련 참여 시간 보장

- (학습휴가 활성화) 평생교육법상 학습휴가가 명시되어 있으나 선언적 규정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
 - ※ (법적근거) 평생교육법 제8조 : 지자체·공공기관의 장, 사업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유·무급 휴가 실시 또는 학습비 지원 가능
- 학습자가 학습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 기반 조성 (‘24~)

기반 조성(안)

- ▲ (교육부) 지자체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마련을 통한 학습휴가 도입·운영 확대
-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지원의 확대를 통한 학습휴가 활성화 기반 조성

-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평생학습·훈련 참여가 개인의 권리이자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 구축 추진
- (일-학습 순환제) 재직자의 학습휴가 기간중 취준생·실업자가 대체 근무로 실무경험을 쌓는 ‘일-학습 순환제(Job-Rotation)’ 도입 검토 (장기)

국외 사례 : 덴마크의 JobRotation 모델

- ▶ 재직자에게 비교적 장기의 숙련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훈련기간 중 그 자리에서 실업자가 대체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 성과평가 결과(‘14), 대체근로 경험이 실업자의 고용과 임금 상승을 촉진하고, JobRotation에 참여한 구직자가 비참여자보다 2~3주 더 빠르게 구직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진단 및 콘텐츠 개발 · 제공

- (개요)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가 다채로운 학습(쌍방향 학습, 토론, AR·VR 등)을 효과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해력 필수
- (진단 도구 개발) 개인 맞춤형 교육 설계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해 학습자의 디지털 문해력 수준 측정 위한 진단시스템 개발·활용(‘21~)
 - ※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뿐 아니라 디지털 정보 비판적 독해력, 디지털 기반

상호 소통 역량, 디지털 시민 윤리 등을 총체적으로 진단

국외 사례

- ▶ 2006~2017년동안 개발된 44개의 디지털 역량 측정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이중 30개는 초중등학생 대상, 14개는 대학생·성인 등 대상이었음(UNESCO)
- ▶ 교육기술국제협회(ISTE)의 학생 대상 디지털문해력 측정 진단기준은 디지털 시민 윤리, 디지털 정보 비판적 독해 등을 체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 (콘텐츠 개발·보급) 학습자의 디지털 문해 수준과 도달 목표를 고려한 다양한 수준의 디지털 문해력 보완 교육콘텐츠 개발 ('21~)
 - 학습자의 수준 및 여건에 따라 오프라인, 온라인, '찾아가는 직접 방문 교육' 등 학습 경로 다양화
 - ※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문해학습자를 위하여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단계적 확대 → ('19) 6개 지자체 → ('20) 16개 지자체 → ('21, 예정) 30개 지자체
 - ※ 원하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 복지관 등 생활SOC를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 연간 1,000개소 운영, 디지털 기초·생활·중급 등 종합 역량 교육('20.하)
- (디지털 역량 교육) 전 국민 대상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습득을 위해 AI·SW 디지털 융합교육을 STEP 등 플랫폼을 통해 무료 제공 ('20~)
 - ※ 연 60만명 대상으로 운영하며, 수료시 공식 이수증 발급

□ 교육·훈련 경로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체계도 구축

- (개요) 체계적인 학습 순서(교과목, 훈련과정 등)를 제시한 이수체계도 구축으로 개인의 역량, 교육 목적에 따른 교육·훈련경로 설정 지원('21~)
- (구축 범위) 학습자의 다양한 기초역량 수준 및 학습·훈련 목적*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졸업부터 석사 수준까지 구축
 - *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 타 전공 이수자, 해당 전공 이수자 등
 - ※ Harvard 평생학습과정중 data science 과정은 학습자의 관련분야 ①배경지식 전문 ②일부 배경지식 소유 ③관련 전공자별로 path A, B, C 로 구성
- (구축전략) 학점은행제의 전공별 표준교육과정('20년 기준 총 227개)에 대한 분석 및 자체 이수체계도 제시 ('21~, 순차 확대)

- KQF를 기반으로 개발한 분야별 학습-훈련 연계 기준을 바탕으로 NCS 기반 직업훈련과정과 연계 (장기)

5 다양한 활동을 학습으로 인정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현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교육훈련, 현장경력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KQF(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구축
 - ① '지식' ② '기술' ③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성요소로 하여 심화 정도에 따라 8개 수준으로 구분 ('19년 고시)
- (시범사업) S/W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실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연계 기준 마련에 활용('20~)
 - NCS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학력-훈련-경력-자격의 상호 등가성을 인정하는 산업계 사례를 도출하고,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현장적용성 검증 결과 적극 홍보 및 다른 산업 분야에의 확장을 검토·제안하여 타 산업계 적용 유도

□ KQF 기반, 직업훈련 및 직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기준 마련

- (개요) 직업훈련 이수 결과와 직무경험을 NCS능력단위로 전환하여 학습결과로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 개발 ('20~)
- (직업훈련→학점) NCS 능력단위를 참고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직업훈련과의 연계 기준 개발 ('20~)
 - ※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도 NCS 능력단위를 참고하여 분석하여 별도의 직무역량 단위로 재구성 → 직무역량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NCS 능력단위와 매칭
- 학점은행제 이수 결과와 직업훈련과정 이수 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학위 및 자격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운영 예시

- ▶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간단한 심의절차를 거쳐 직업훈련 이수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바로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를 조기에 취득

- (직무경험→학점) 산업현장에서 습득한 직무경험을 NCS 능력단위로 인정하여 대학 편입 또는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등에 활용

국외 사례

- 프랑스 VAE (Validation Acquis del'Experience) : 근로경험을 학위·학점·자격으로 연계하며, 접수에서 심사완료까지 약 1년 소요
- 호주 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 직업교육훈련 중복비용·반복학습 제거 목적으로 운영되며, 증거자료 및 포트폴리오 등으로 심사를 받음

- 대학에 적용되는 학습경험인정제*의 학점은행제에의 도입 검토 ('24~)
- *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 학습·연구·실습·직무경험 등을 일정한 심의를 거쳐 최대 졸업학점 1/4까지 학점으로 인정(고등교육법 제23조)
- 도입을 희망하는 대학·산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직무경험을 학습결과로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

운영 예시

- ▶ 특성화고 졸업 후 제조업 근무경력 20년인 B씨는 직무경험(CNC 기계 조작, 프로그래밍 경력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아 기존에 취득한 학점은 행제 학점에 더하여 전문대학으로 편입

□ KQF 기반, 국가공인 자격증의 학점 인정 기준 구체화

-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자격의 출제기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학습자의 불필요한 중복학습 방지
- NCS 능력단위가 분석되어 있는 일·학습병행제 자격과 학점은행제 학점 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체계 우선 구축 ('21~)
- 자격별 실제 습득난이도와 직무역량을 차별화하여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전환 기준' 구체화 추진 ('24~)
- ※ (기존) 자격증을 해당 전공의 학점(2~45)으로 통전환 → (개선)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역량과 매칭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 인정

6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훈련 추진체계 구축

□ 중앙정부 차원의 평생교육·훈련 추진체계 개선

- (범정부 협업체계 내실화) 평생교육에 관한 부처간 협업은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조정 ('20~)
 - 평생교육 관련 부처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업 과제 발굴·논의 등
 - ※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교육부, '23-'27),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고용부, '23-'27) 수립 시 부처간 정책방향 공유하여 계획 수립('22)하고 시장회의에 상정하여 논의
-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운영 개선)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구성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의 활성화를 위해
 - 위원 구성을 각 부처 차관급(당연직) 중심에서 평생교육 전문가(위촉직) 중심으로 개편하여 안전 발굴 및 운영 내실화 제고 ('21)
 - ※ 평생교육 분야 협업 증진을 위해 차관급 당연직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나 개최 실적 저조

□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제도 개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의 평생교육 책무성 강화 및 상호 소통과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21~)
 - ▲ 평생교육 정보의 체계적 상호 공유·관리 체계 구축, ▲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 시·도 수립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검토 및 환류 등

《 평생교육법상 추진체계 》

	추진기구	수립계획	지원·집행기관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 교육부장관)	5개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 지자체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의장 : 시·도지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기초 지자체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의장 : 기초지자체장)	자체 평생교육계획 (근거 : 조례)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역할 재정립

- (기본 방향) 미래 평생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지속 발굴·제시하면서 국가차원의 평생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조직으로 재정립(‘21~)
 - (IT 관련)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라 원격 콘텐츠 확보 및 질 관리, 대학의 석사과정 운영 지원(KMOOC 활용), 평생배움터 관리 등 기능 확대
 - ※ 온라인·디지털 중심 기능 보완을 고려하여 ICT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연구 및 지자체 연계) 평생교육 정책방향 제시 위한 연구기능*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정기회의, 정보공유 등)
 - * 현행법률상 국평원은 정책수립 지원 및 집행, 정책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
 - (국·내외 협력) 평생교육 분야의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국·내외의 평생교육 관련 기관·학회와의 연계체계 구축 기능 보완
 - ※ 해외 우수 MOOC와의 연계, 국내 K-MOOC의 해외 진출 지원 등
 - ※ 현행 법률상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기능만 명시
- (추진 사항) 기능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평생교육법 개정), 조직·정원·예산 등 확보 추진

V. 향후 추진 계획

- 개별과제별 세부 계획 수립 : ‘20년 하반기~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20년 하반기~

과제명	추진시기	주관부처
① 평생교육·훈련 통합 서비스를 위한 '(가칭)평생배움터' 구축		
① 차세대 K-MOOC 플랫폼 고도화	('20~)	교육부
② 평생역량개발 원-아이디 통합 시스템 구축	(~'22)	교육부
③ 평생배움터 구축	('21~)	교육부
④ 디지털집현전, 타 플랫폼과 상호 연계	('22~)	교육부
② 비대면 평생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① K-MOOC 2.0 구축 추진	('20~)	교육부
② 비대면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속	노동부
③ NCS 학습모듈 신속 업데이트 추진	지속	교육부
④ 평생교육·훈련 콘텐츠 정보 표준안 마련	('22~)	교육부
③ 다양한 평생교육·훈련 공급 여건 마련		
① 원격대학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검토 추진	('20~)	교육부
② 원격대학 규제완화 (명칭, 전공심화과정, 시간제등록제 등)	('21~)	교육부
③ 역량이수제(모듈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1~)	교육부
④ 소규모 학점인정 사내대학 신설 검토	('22~)	교육부
⑤ 평생직업교육학원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논의	('20~)	교육부
④ 평생교육·훈련 학습자 지원 확대		
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규모(총 지원자, 인당 지원액) 확대	('21~)	교육부
②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저소득층→경단녀 등) 추진	('21~)	교육부
③ 국민내일배움카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 추가 지원	('21~)	노동부
④ 모듈형 교육과정 이수 결과에 따른 장학금 지원 검토	('24~)	교육부

과제명	추진시기	주관부처
⑤ 학습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추진	('24~)	교육부
⑥ 일·학습 순환제 도입 검토	(장기)	노동부
⑦ 디지털 문해력 측정도구 개발	('21~)	과기부
⑧ 디지털 리터러시 보완 교육콘텐츠 개발	('21~)	과기부
⑨ 주요 분야별 이수체계도 개발	('21~)	교육부
5] 다양한 활동을 학습으로 인정		
① 평생학습-직업훈련 간 연계기준 마련 시범사업	('20~)	교육부
② 학점은행제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검토	('24~)	교육부
③ 일·학습병행 자격-학점 상호 연계 체계 구축	('21~)	교육부
④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전환기준 구체화 추진	('24~)	교육부
6]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훈련 추진체계 구축		
① 범부처 협업체계 내실화	('20~)	교육부
②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정비 관련 법령 개정	('21)	교육부
③ 평생교육·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시 연계 강화	('22~)	교육부, 노동부
④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21~)	교육부
⑤ 교육부-지자체-교육청 연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21~)	교육부
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법령 개정	('21~)	교육부

< 온라인 공개강좌 (MOOC) >

- (개념)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
- (특징) 교수-학생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피드백 등의 학습관리, 학습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간, 학습자-학습자간 양방향 학습 가능

- (추진배경) 고등교육기관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대학의 교수-학습 혁신 촉진
- (학습자 현황) '15.10월 서비스 오픈 이후 방문 1,452만건, 회원가입 62.5만명, 수강신청 142.8만건 등 학습자 이용 지속 확대('20.5. 기준, 누적)

< K-MOOC 학습자 이용 통계('20.5.기준) >

(단위: 만명)

구분	'15년(10~12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1-5월)	누계
방문건수	44.6	173.6	256.2	315.7	415.3	247.3	1,452.8
회원가입자수	3.5	8.0	11.3	12.9	14.8	11.9	62.5
수강신청건수	5.6	12.6	26.4	33	39.2	25.9	142.8

- (강좌 개발) '15~'19년 간 무크선도대학 선정, 개별강좌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묶음강좌* 선정 등으로 총 745개 강좌 제공('19.12.기준)

* 4~5개의 강좌를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제공하여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 학습 지원

※ 강좌 수(누적) : ('15) 27개 → ('16) 143개 → ('17) 324개 → ('18) 510개 → ('19) 745개

< 학문분야별 강좌 수('19.12) >

구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총계
강좌 수	201	191	25	165	76	42	45	745
	(27.0%)	(25.6%)	(3.4%)	(22.1%)	(10.2%)	(5.6%)	(6.0%)	(100.0%)

- (강좌개발 기관) 산업변화 및 기업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고자 강좌개발 주체를 기업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등 다양한 기관으로 확대

※ ('17) 대학·전문대학 → ('18) 기업·출연연 포함 → ('19) 기업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공익법인 등

- (강좌 활용도 제고) K-MOOC 활용,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등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학점인정 확대 추진

- 일반국민도 K-MOOC 이수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K-MOOC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활성화('19년 11개 강좌 개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18.11.13) 및 고시('18.12.22) 개정

참조 2

평생직업교육학원 현황

□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시설의 비교

구 분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	등록제	등록제	신고·등록·인가등
학습대상	학생, 유아, 장애인 또는 학교교육과정	성인 (다만, 학생이 취업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경우는 포함)	전 국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설비 기준	보습학원 : 45~90㎡ 이상 (조례로 규정되어 시·도별로 차이)	시·도 조례로 교습과정별 기준 마련됨	별도 시설면적 기준 없음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서버 등 장비(원격형태)
교습과목 제한	제한 없음 (교습과정으로 등록)	제한 없음 (교습과정으로 등록)	정규 교육과정 제외
강사 자격	전문대학 졸업 이상 (단, 외국인강사의 경우 대졸 학력 이상)	고졸 이상 (단, 외국인강사의 경우 대졸 학력 이상)	제한 없음 (각 시설별 평생교육사 1명 이상)
교육환경 정화규정 (유해업소와 분리)	적용 (학교교과교습학원)	미적용	미적용
학원장 (설치자) 연수	적용	적용	미적용
수강생에 대한 상해 배상보험 가입	적용	적용	적용
교습비등 표시·게시 및 공개	적용	적용	미적용
교습비등 조정명령	적용 (학교교과교습학원)	미적용	미적용
행정처분 및 과태료, 벌칙 규정	적용	적용	적용 (다만, 벌칙규정 없음)

□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기본틀 설계 시안 주요내용

- (명칭)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KQF)
- (개념)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
- (구성요소) ① 지식 ② 기술 ③ 자율성과 책임성

구성요소	정의
지식 (knowledge)	직무수행 또는 학습을 통해 체득된 사실, 원칙, 이론, 개념 등을 포괄하는 인지적 능력
기술 (skill)	과업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료 및 도구 등을 사용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자율성과 책임성 (autonomy & responsibility)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나 타인의 직무수행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능력

○ 수준별 설명지표(Level Descriptor)

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자율성과 책임성 (Autonomy & Responsibility)
8	·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 지식과 관련 분야와의 융합적 지식	· 관련 지식을 확장하고 재정의하는데 필요한 융합적 기술	· 조직 전반에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세스를 창출 · 조직 전반에 대한 전문가적 권한 및 책임
7	· 해당 분야 고도의 전문 지식과 관련 분야와의 연계적 지식	· 새로운 지식과 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연계적 기술	· 새로운 전략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고 타인의 성과를 평가
6	· 해당 분야의 심화된 전문 지식	· 해당 분야의 예측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	· 일반적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조직의 과업을 관리
5	· 해당 분야의 포괄적 전문 지식	· 해당 분야의 일상적이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	· 일반적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의 과업을 관리
4	· 해당 분야의 제한적 전문 지식	· 해당 분야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	·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의 정해진 과업을 관리
3	· 해당 분야의 포괄적 기초 지식	· 해당 분야의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	· 제한된 권한 내에서 정해진 과업 수행
2	· 해당 분야의 제한적 기초 지식	·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 일반적인 지시를 받아 정해진 과업 수행
1	· 문자 이해, 연산 능력 등 단순 지식	·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정해진 과업 수행